

Toray · Toyobo, 에어백 해외생산 확대

에어백용 섬유 대폭 신증설 ... 중국 생산거점 구축에 타이시장 공략도

자동차용 에어백이 세계적인 안전중시 추세를 배경으로 운전석·조수석의 표준장비화, Curtain 에어백이나 무릎 에어백 등 장착부위가 확대되고 있다.

Curtain 에어백은 자동차의 회전을 상정하고 있어 운전석·조수석용과 달리 일정시간 팽창돼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용되는 나일론66 기포에는 낮은 기압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에어백 생산기업들은 짜는 방식을 고안해 코팅가공을 개량하는 등 통기도를 낮추는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기포의 양은 운전석·조수석·사이드용 3점 합계와 같은 양인 약 1kg에 달해 원사·기포 모두 수요증가가 확실시되고 있다.

에어백용 원사·기포의 일본시장을 양분화하고 있는 Toyobo와 Toray는 소비자인 일본 에어백 모듈 메이커의 진출계획과 연동하는 형태로 해외생산 확충을 서두르고 있다. 해외생산의 확대는 일본기업 이외의 자동차 메이커에 채용을 노리는 포석이기도 하다.

Toyobo는 원사는 일본에서 집중생산하고 기포는 일본과 타이에서 생산하고 있다. 수요증가에 대응해 원사 생산능력을 1년 앞당겨 증설할 계획이며, 2004년 54% 증가한 1만톤 생산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기포도 순조롭게 증설해 일본에서 월 140만m의 생산능력을 보유하는 한편, 2배 증설한 타이에서는 2004년 3월 100만m 생산체제를 정비할 계획이고 중국에서의 생산도 마무리 단계에 있다.

Toray는 2004년 4월부터 원사 생산을 시작한 타이공장을 2005년 6000톤으로 2배 증설하는 한편, 월 10만m로 증설을 완료한 기포도 2004년 2배 증가한 20만m로 확장해 조기에 50만m까지 증설할 방침이다. 또 중국에서는 우선 기포의 생산거점을 새롭게 구축해 2004년부터 10만m를 생산할 계획이며, 원사도 南通의 합성섬유 공장에 3000톤 설비를 설치한 후 조기에 6000톤까지 증설시킬 방침이다.

양사는 일본, 타이에서의 공급체제 강화와 병행해 미국 및 유럽의 수요확보에도 나서고 있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화학저널 2004/06/11>